

유한성의 수용과 진정한 삶의 회복: 올리버 버크먼의 《Four Thousand Weeks》에 대한 실존적 탐구

## 서론: 왜 '4000주'인가? - 현대적 시간 강박과 유한성의 전제

본 보고서는 올리버 버크먼(Oliver Burkeman)의 저서 《Four Thousand Weeks: Time Management for Mortals》(한국어판 제목: 4000주)에 대한 심층적 해제 및 분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저자 올리버 버크먼은 영국의 저명한 저널리스트로, 가디언(The Guardian) 지에 "이 칼럼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이다(This Column Will Change Your Life)"라는 제목의 칼럼을 오랫동안 연재하며 현대인의 심리와 행복을 탐구해왔다.<sup>1</sup> 그는 스스로를 '생산성 전문가(productivity geek)'<sup>3</sup>라고 칭할 만큼 수많은 시간 관리 기법과 효율성 도구들을 섭렵했지만, 결국 그 모든 시도가 자신을 더 행복하게 만들기는커녕, 더 큰 불안과 스트레스로 몰아넣었음을 고백한다.<sup>3</sup>

이 책은 그가 '회복 중인 중독자'의 관점에서, 왜 현대의 생산성 문화가 근본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지 고발하는 지적 여정의 총결산이다.

책의 제목 '4000주'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이는 80세까지 산다고 가정할 때, 한 인간에게 평균적으로 주어지는 삶의 시간을 주(週) 단위로 환산한 구체적인 숫자이다.<sup>5</sup> 버크먼은 "터무니없이, 모욕적일 정도로 짧은(absurdly, terrifyingly, insultingly short)"<sup>5</sup> 이 시간을 전면에 내세움으로써, 독자에게 '시간'이라는 문제를 피상적인 '관리'의 대상이 아닌, '유한성(Finitude)'이라는 실존적 조건으로 직시하도록 강제한다.

이 책의 핵심 전제는 명확하다. "인간의 삶은 약 4000주라는 절대적인 한계 내에 있으며, 현대의 모든 '시간 관리'와 '생산성' 문화는 이 명백한 유한성을 부정하고, 우리가 신(神)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헛된 시도, 즉 '덫(trap)'이다".<sup>3</sup>

시간의 짧음에 대한 고뇌는 인류의 오랜 화두였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Seneca)는 이미 《인생의 짧음에 관하여(On the Shortness of Life)》에서 "우리가 가진 시간이 짧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많은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sup>7</sup> 20세기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스(John Maynard Keynes)는 기술의 발전으로 인류가 주 15시간만 일하게 될 것이며, 가장 큰 문제는 남는 '여가'를 어떻게 채울지일 것이라 예측했다.<sup>9</sup>

버크먼은 이 문제를 21세기의 맥락에서 재해석한다. 케인스의 예측은 틀렸다. 기술의 발전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할 일 목록(to-do list)'은 무한히 늘어나는 반면<sup>10</sup>, 우리의 시간은 여전히 유한하다는 디지털 시대의 근본적인 역설을 파헤친다.

따라서 이 책은 '시간 관리(Time Management)' 서가에 꽂혀 있지만, 실제로는 '시간 관리의 불가능성'을 설파하는 \*\*\*반(反) 시간 관리서\*\*\*이다. 저자는 우리가 '시간'을 '삶'과 분리하여 '관리'할 수 있는 외부 '자원(resource)'으로 취급하기 시작한 근대적 관점 자체가 모든 문제의 시작이라고 주장한다.<sup>11</sup> 이는 1부 1장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다.

버크먼은 독자에게 '더 잘하는 법'을 제시하지 않는다. 그는 '환상에서 깨어나는 법'을 제시한다. 다음의 인용문은 이 책의 실존적 무게를 명확히 보여준다.

"Assuming you live to be eighty, you'll have had about four thousand weeks. [...] Arguably, time management is all life is."<sup>11</sup>

[해설] 이 인용문은 '4000주'라는 유한성을 전제로 할 때, '시간 관리'는 단순히 업무 효율을 높이는 삶의 기술(life hack)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유일한 삶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에 대한 철학적 질문, 즉 '삶 그 자체(all life is)'가 된다는 것을 선언한다.

## 제1부: Choosing to Choose (선택하기로 선택하기)

제1부의 제목 '선택하기로 선택하기'는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개별적인 선택(예: A 업무를 할까, B 약속을 잡을까) 이전에, 더 근원적인 '메타-선택(meta-choice)'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이 근원적 선택이란 바로 "나는 나의 유한성을 받아들이 것인가, 아니면 계속 부정하며 모든 것을 다 하려고 애쓸 것인가?"라는 실존적 결단이다. 1부의 6개 장은, 이 근본적인 선택을 회피하기 위해 현대인이 사용하는 다양한 심리적 방어기제들—효율성에 대한 집착, 미루기, 주의 산만—을 하나씩 폭로하고 해체한다.

## Chapter 1: The Limit-Embracing Life (한계를 수용하는 삶)

이 장은 현대인이 겪는 고질적인 '시간 불안'의 근원을 파헤친다. 버크먼에 따르면, 문제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라, 시간을 '자원(resource)'으로 취급하는 우리의 태도에 있다.<sup>11</sup>

버크먼은 산업혁명 이전, 중세 시대 농부의 삶을 예로 든다.<sup>13</sup> 그들은 시간을 '사용'하지 않았고, 그저 '삶'을 살았다. 그들에게 시간은 시계의 추상적인 눈금이 아니라, '젓소의 젖을 짜 시간' 혹은 '수확할 때'와 같은 구체적인 '과업 중심(task orientation)'의 리듬이었다.<sup>14</sup>

그러나 시계가 발명되고 보급되면서, 특히 자본주의가 발전하고 노동 시간이 임금으로 환산되기 시작하면서, '시간'은 '삶'의 리듬에서 분리되었다. 시간은 '사용'하고, '절약'하며, '낭비'할 수 있는 추상적인 자산이 되었다.<sup>11</sup> "일단 '시간'과 '삶'이 대부분의 사람들 마음속에서 분리되자, 시간은 당신이 사용하는 '어떤 것(a thing)'이 되었"으며, "시간이 사용해야 할 자원이 되면, 당신은 그것을 잘 사용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기 시작"한다.<sup>11</sup>

이것이 현대적 불안의 시작이다. 우리는 시간을 통제하고 '완벽하게 사용'하려 하지만, 시간은 결코 우리의 통제하에 놓이지 않는다. 이 지점에서 이 장의 핵심 개념인 '\*\*제한의 역설(The Paradox of Limitation)\*\*'이 등장한다.

'제한의 역설'이란, 우리가 시간의 유한성이라는 현실을 부정하고 시간과 삶에 대한 '완전한 통제(total control)'를 달성하려 할수록, 삶은 더욱 스트레스 받고, 공허하며, 좌절스러워진다는 것이다.<sup>6</sup> 역설적으로, "당신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명백한 한계(limit)와 유한성의 사실들을 진정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할 때<sup>15</sup>, 비로소 우리는 통제에 대한 강박에서 벗어나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생산성'과 의미, 그리고 기쁨을 얻게 된다.<sup>6</sup>

'한계를 수용하는 삶'이란 단순히 '포기하는 삶'이 아니다. 이는 '불가능한 모든 것'을 포기함으로써, '가능한 하나의 진정한 것'을 선택하겠다는 적극적인 결단이다. '결정(decision)'이라는 단어의 라틴어 어원 'decidere'가 '잘라내다(to cut off)'<sup>17</sup>라는 뜻을 품고 있듯이, 진정한 결정은 다른 모든 가능성을 기꺼이, 그리고 고통스럽게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버크먼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야말로 한계를 수용하는 삶의 정의 그 자체"<sup>18</sup>라고 말한다.

## Chapter 2: The Efficiency Trap (효율성의 덫)

1장에서 우리가 시간을 '자원'으로 취급하는 오류를 지적했다면, 2장은 우리가 그 '자원'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용하는 '효율성(efficiency)'이라는 도구가 어떻게 우리를 배신하는지 분석한다. '효율성의 덫'이란, 우리가 시간을 더 많이 확보하기 위해 효율성을 추구할수록,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바빠지고 더 많은 압박에 시달리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sup>14</sup>

이 덫이 작동하는 메커니즘은 파킨슨의 법칙(Parkinson's Law: "일은 주어진 시간을 채우기 위해 팽창한다")<sup>14</sup>의 변형이다.

1. 당신이 더 효율적이 된다 (예: 이메일 답장 속도를 두 배로 높인다).
2. 그 결과, 당신은 더 많은 일을 처리할 수 있게 되고, 주변(혹은 스스로)의 기대치가 높아져 더 많은 일이 당신에게 밀려온다 (더 많은 이메일을 받게 되고, 더 빠른 답장을 기대하게 된다).<sup>20</sup>
3. 또한, 당신의 효율성으로 인해 새로운 가능성(해야 할 일, 하고 싶은 일)이 더 많이 눈에 띄게 된다.<sup>15</sup>
4. 결과: 당신은 더 효율적으로 일하지만, 이전보다 훨씬 더 바빠지며 '할 일이 끝이 없다'는 절망감에 빠진다.

버크먼은 이메일 처리의 역설을 통해 이 덫을 명확하게 설명한다.

"...it's that the process of "getting through your email" actually generates more email. The general principle in operation is one you might call the "efficiency trap." Rendering yourself more efficient... won't generally result in the feeling of "enough time," because... the demands will increase to offset any benefits. Far from getting things done, you'll be creating new things to do."<sup>20</sup>

[해설] 이 인용문은 '효율성의 덫'을 완벽하게 정의한다. 효율성은 '할 일'이라는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높일 뿐, 벨트 자체를 멈추지 못한다. 오히려 벨트에 더 많은 짐을 올려놓게 만들 뿐이다.<sup>21</sup>

'효율성의 덫'은 단순히 업무량이 늘어나는 물류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3장에서 다룰 '유한성'이라는 실존적 고통을 마주하지 않기 위한 고도로 발달한 심리적 방어기제이다. 우리는 '할 일이 너무 많아서' 바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언젠가 이 모든 것을 다 해낼 수 있을 것'이라는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그 환상이 깨어지는 고통스러운 순간을 피하기 위해, 스스로를 끊임 없이 바쁘게 만든다. '효율성'은 그 환상을 깨지지 않게 유지시켜 주는 마약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술의 발전 역시 이 덧붙을 강화한다. 식기세척기, 이메일, 고속 인터넷, 각종 생산성 앱들은 우리에게 여유를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기대를 가속화하고 우리를 더 조급하게 만들었다.<sup>5</sup> 기술은 시간을 절약해준 것이 아니라, '더 빠르고 더 많이'를 요구하는 사회적 기준을 상향시켰다.

### Chapter 3: Facing Finitude (유한성 마주하기)

이 장은 《4000주》 전체의 철학적 심장이다. 저자는 1장(시간의 자원화)과 2장(효율성의 덧)에서 기술한 문제들이 발생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우리가 인간 실존의 핵심 조건인 '유한성(Finitude)'을 직시하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이 지점에서 버크먼은 20세기 실존주의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Martin Heidegger)의 사상을 소환한다.<sup>7</sup>

버크먼은 하이데거의 난해한 개념을 빌려와, 인간 존재(Dasein, 현존재)는 근본적으로 '유한한 시간' 그 자체라고 설명한다.<sup>7</sup> 하이데거에게 인간은 '시간을 가진(have) 존재'가 아니라, '시간 인(be) 존재'이다. 버크먼은 이를 다음과 같이 명료하게 표현한다.

"We don't get or have time at all — that instead we are time."<sup>8</sup>

우리의 삶은 탄생과 죽음 사이의 정해진 '기간(stretch)'이며, 이 유한한 시간성이야말로 다른 사물과 구별되는 인간 존재를 규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조건이다.<sup>16</sup>

"Our limited time isn't just one among various things we have to cope with; rather, it's the thing that defines us, as humans, before we start coping with anything at all."<sup>16</sup>

[해설] 유한성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problem)' 중 하나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가 다른 어떤 문제에 대처하기 이전에, 이미 우리를 '인간'으로 규정하는 '조건(condition)' 그 자체이다.

하이데거는 이러한 유한성, 즉 '죽음을 향한 존재(Being-towards-death)'를 직시하고 그 위에서 자신의 삶을 선택하는 것을 '진정성 있는(authentic) 삶'이라고 불렀다. 반면, 이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사람들(they)'이 그렇듯 일상적인 바쁨(busyness) 속에 자신을 내던지며 살아가는 것을 '비진정성적인(inauthentic) 삶', 즉 '빠져 있음(Falling)'<sup>14</sup>이라고 불렀다. '효율성의 덧'(2장)에 빠져 "모든 것을 다 해낸다"는 불가능한 임무에 몰두하는 현대인의 모습은, 하이데거가 말한 '비진정성적인 삶'의 전형이다. 그들은 '바쁨'이라는 방패 뒤에 숨어 '나는 결국 죽는다'는 불편한 진실을 외면하고 있다.

그러나 버크먼은 유한성이 단지 고통스러운 형벌이 아니라고 말한다. 우리는 유한성을 '무한한 시간을 누리지 못하는 박탈'로 느끼지만, 저자는 이 관점을 뒤집는다. 유한성은 오히려 '선물'이다. 우리가 '무한한 시간'을 기준으로 삼기에 4000주가 짧아 보일 뿐, '아예 태어나지 않았을 가능성'에 비추어보면, 4000주라는 시간은 "거의 헤아릴 수 없을 만큼 기적적인" 선물이다.<sup>16</sup>

더 나아가, 유한성이야말로 삶에 '의미'를 부여하는 핵심 조건이다. 만약 우리의 삶이 무한하다면, 어떤 선택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다. 마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당장 무언가를 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사랑에 빠지고, 어떤 일에 헌신하며, 선택의 기로에서 고뇌하는 이유는, 우리의 시간이 유한하며 단 한 번뿐임을 알기 때문이다.<sup>7</sup>

### Chapter 4: Becoming a Better Procrastinator (더 나은 미루기)

3장에서 '유한성'을 받아들였다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나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냉엄한 결론에 도달한다. 이는 곧,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함을 의미하며, 어떤 것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머지 모든 것을 '선택하지 않음', 즉 '미루기(Procrastination)'를 의미한다.

이 장에서 버크먼은 '미루기'에 대한 전통적인 관념을 완전히 뒤집는다. 미루기는 제거해야 할 '죄악'이나 '나쁜 습관'이 아니라, 유한한 삶을 살아가는 인간에게 '필수적인 기술'이다.

우리는 이미 항상 모든 것을 미루고 있다. 지금 이 보고서를 읽고 있는 독자는, 그와 동시에 할 수 있었던 수천 가지의 다른 일들(식사, 수면, 운동, 다른 업무, 가족과의 대화)을 '미루고' 있는 것이다.<sup>24</sup> 따라서 문제는 미루기를 '하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그리고 어떻게' 미루느냐이다. 버크먼은 "훌륭한 시간 관리 기술의 진정한 척도는, 그것이 당신이 '올바른 것들'을 무시하도록(neglect the right things) 돕는지 여부"<sup>5</sup>라고 단언한다.

여기서 '나쁜 미루기'와 '좋은 미루기(더 나은 미루기)'의 구분이 생긴다.

- 나쁜 미루기<sup>24</sup>: 중요하고 의미 있지만, 당장 하기에 어렵고 불편한 일(예: 박사 논문 쓰기, 어려운 대화 시작하기)을 피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피하기 위해, 쉽고 사소하지만 덜 중요한 일(예: 이메일함 정리, 책상 청소)로 도피하는 것이다. 이는 6장에서 다룰 '친밀한 방해자'의 핵심 작동 방식이다.
- 좋은 미루기<sup>5</sup>: 사소하고 중요하지 않은 수많은 일들, 혹은 '그저 그런(middling)' 수준의 일들을 '의식적으로', 그리고 '전략적으로' 미루는 것이다.<sup>14</sup> 이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다"는 유한성을 받아들였기에 가능한 적극적인 선택이다. 이를 통해 가장 중요하고 본질적인 소수의 일을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확보한다.

버크먼은 '더 나은 미루기'를 실천하기 위한 세 가지 구체적인 원칙을 제시한다<sup>5</sup>:

1. 자신에게 먼저 지불하기 (Pay yourself first): 저축을 하듯, 하루의 시간을 '가장 중요한 일'을 위해 맨 먼저 사용하라. 많은 사람들이 저지르는 실수처럼, '사소한 일들을 먼저 끝내고 나중에' 중요한 일을 하려 하면,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는다.<sup>5</sup>
2. 진행 중인 작업 제한하기 (Limit your work in progress): 한 번에 너무 많은 프로젝트를 벌이지 말라. 한 번에 하나의 대형 프로젝트(혹은 최대 3개 이내)에만 집중하라.<sup>14</sup> 이는 '모든 전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유한성을 인정하는 태도이다.
3. 어중간한 우선순위 거부하기 (Resist middling activities): 워런 버핏의 조언으로도 유명한 이 원칙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몇 가지를 제외한 '적당히 흥미롭거나' '그럭저럭 중요한' 나머지 일들에 대해 단호하게 '아니오'라고 말할 것을 요구한다.<sup>14</sup>

## Chapter 5: The Watermelon Problem (수박 문제)

4장에서 '더 나은 미루기'를 결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나쁜 미루기', 즉 중요하지 않은 일에 시간을 낭비하는가? 5장은 이 '주의 산만(distraction)'의 본질을 다룬다.

저자는 2016년 미국의 인터넷 매체 버즈피드(BuzzFeed)가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한 '수박 터뜨리기' 영상을 이 장의 제목이자 핵심 사례로 사용한다.<sup>4</sup> 이 영상은 두 명의 직원이 수박에 고무줄을 하나씩 감아, 언제 터지는지 지켜보는, 지극히 무의미한 내용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40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생중계를 실시간으로 지켜보며 자신의 시간을 소진했다.<sup>4</sup>

'수박 문제'는 현대적 주의 산만의 특징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1. 그것은 '생산적인 일'이 아니다.
2. 그것은 (9장에서 다룰) '진정한 휴식'도 아니다.
3. 그것은 그저 '무의미한 기대감'과 '자극' 속에서 우리의 가장 소중한 자원인 '주의력'을 소모시킨다.<sup>25</sup>

이 장에서 버크먼은 책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통찰 중 하나를 제시한다. 그것은 바로 **\*\*\*주의력(Attention)이 곧 삶\*\*\***이라는 것이다.

"Your experience of being alive consists of nothing other than the sum of everything to which you pay attention."<sup>24</sup>

[해설] 당신의 삶의 경험은, 당신이 '주의를 기울인 것들'의 총합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즉, 당신이 무의미한 회의에 앉아 있거나, 넷플릭스를 보거나, SNS 피드를 스크롤하는 데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면, 당신의 '삶'은 그 순간 넷플릭스, 회의, SNS 스크롤이 되는 것이다.

주의력을 낭비하는 것은 단순히 '시간'을 낭비하는 것(1장)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의 '삶 자체'를 그 대상에게 자발적으로 헌납하는 행위이다.<sup>24</sup>

'수박 문제'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우리의 '삶(주의력)'을 타인(이 경우, 버즈피드)에게 저당 잡히는지를 보여준다. 현대의 '주의력 경제(Attention Economy)'는 우리의 유한한 4000주를 의미 있게 쓰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한한 주의력을 1초라도 더 빼앗아 광고주에게 팔아넘기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 '덧'은 2장의 '효율성의 덧'보다 훨씬 더 교활하고 강력하다.

## Chapter 6: The Intimate Interrupter (친밀한 방해자)

5장에서 '무엇이' 우리의 주의를 훔치는지 다루었다면, 6장은 '왜' 우리가 그토록 순순히 주의력을 내어주는지 그 근본 원인을 탐구한다. 버크먼은 범인이 외부에 있지 않다고 단언한다. 진짜 방해자는 우리 **내부**에 있다.<sup>24</sup>

저자는 시인 메리 올리버(Mary Oliver)의 표현을 빌려, 우리 내면에는 '친밀한 방해자(the intimate interrupter)'가 존재한다고 말한다.<sup>21</sup>

"Mary Oliver calls this inner urge toward distraction "the intimate interrupter"—that "self within the self, that whistles and pounds upon the door panels," promising an easier life if only you'd redirect your attention away from the meaningful but challenging task at hand..."<sup>9</sup>

[해설] '친밀한 방해자'는 "문 안쪽에서 휘파람을 불며 문을 두드리는, 내 안의 또 다른 자아"이다. 이 자아는 우리가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예: 책 쓰기, 아이와 진정으로 놀아주기)을 하려 할 때마다 속삭인다. "이건 너무 어렵고 지루해. 저기 더 쉽고 재밌는 게 있어. (예: 스마트폰 확인하기)"

우리는 왜 이 '방해자'의 속삭임에 넘어가는가? 왜 우리는 스스로 '방해받기를 원하는가'?

버크먼에 따르면, 그 이유는 우리가 '중요한 일'을 할 때 필연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불편함(discomfort)\*\*'과 '\*\*지루함(boredom)\*\*'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이다.<sup>9</sup>

중요하고 의미 있는 일은 본질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우리의 한계(finitude)를 자극하고, 통제 불가능하며(7장), 실패의 위험을 안고 있다. 이 실존적 무게는 고통스럽다.<sup>29</sup> '친밀한 방해자'는 바로 이 "제한에 직면하는 불편함(the discomfort of confronting limitation)"<sup>29</sup>으로부터 도망치라고 유혹하는 내면의 목소리이다.

"The overarching point is that what we think of as "distractions" aren't the ultimate cause of our being distracted. They're just the places we go to seek relief from the discomfort of confronting limitation."<sup>16</sup>

[해설] 스마트폰 알림(방해물)이 원인이 아니다. 그것은 '증상'일 뿐이다. 진정한 원인은, 의미 있는 과업이 주는 그 '불편함'을 1초라도 빨리 회피하고, 즉각적인 '구원(relief)'을 갈망하는 우리 자신이다.<sup>24</sup> 우리는 지루함과 불편함을 견디지 못해 스스로 방해받을 거리를 찾아 나선다.

1부 전체를 요약하자면, 시간 관리의 진짜 문제는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불편한 현실을 견디는 용기'의 문제이다.

## 제2부: Beyond Control (통제를 넘어서)

제1부가 '유한성'이라는 한계 안에서 '선택'하는 법을 다루었다면, 제2부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통제'라는 개념 자체를 해체한다.

버크먼은 우리가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환상<sup>24</sup>을 버릴 때, 비로소 진정한 삶이 시작된다고 주장한다. 이는 1부의 처방보다 훨씬 더 급진적이다. 2부는 우리가 시간의 '주인(master)'이 되려는 노력을 포기하고, 대신 시간의 흐름에 '반응(respond)'하는 법을 배우라고 말한다.

### Chapter 7: We Never Really Have Time (우리는 결코 시간을 '소유'하지 못한다)

이 장은 3장의 하이데거적 통찰("우리는 시간이 *아니라* 시간을 *가진다*"<sup>8</sup>)을 실천적인 차원으로 가져온다. 우리가 시간을 '소유(have)'할 수 없다는 것은, 곧 우리가 '미래'를 통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미래를 통제하기 위해 '계획(plan)'을 세운다. 하지만 계획은 거의 항상 어긋난다. 인지과학자 더글러스 호프스태터(Douglas Hofstadter)가 말했듯이, "어떤 일이든 당신이 예상하는 것보다 항상 더 오래 걸린다. 심지어 당신이 호프스태터의 법칙을 고려할 때조차도 그렇다." (호프스태터의 법칙<sup>14</sup>)

미래는 본질적으로 불확실하고 통제 불가능하다.<sup>14</sup>

우리가 미래를 통제하려 할 때 사용하는 또 다른 잘못된 도구가 '걱정(Worry)'이다. 버크먼은 '걱정'을 '통제할 수 없는 미래'에 대해 어떻게든 '통제감'이나 '확실성'을 얻어내려는 마음의 헛된 시도라고 정의한다.<sup>14</sup> 하지만 미래는 우리의 걱정대로 되지 않으며, 이 시도는 우리를 끊임없는 불안 상태에 머무르게 할 뿐이다.

그렇다면 계획은 무의미한가? 버크먼은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대신 그는 '계획'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재정의할 것을 제안한다.

계획은 "미래를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야 하는 구속력 있는 청사진"이 아니다. 계획은 단지 "현재 순간의 의도 표명(a present-moment statement of intent)"<sup>14</sup>일 뿐이다.

이러한 재정의는 우리를 '계획의 노예'에서 해방시킨다. 계획은 그저 "현재 시점에서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혹은 내가 나아가려는 방향에 대한 스케치"일 뿐이다. 미래라는 통제 불가능한 현실<sup>24</sup>이 이 스케치와 다르게 펼쳐질 때, 우리는 "계획이 실패했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그저 "아, 현실이 나의 의도와 다르게 나타났구나. 이제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물으며 '현재'에 대응하면 된다.

## Chapter 8: You Are Here (당신은 지금 여기에 있다)

우리가 7장에서처럼 미래에 대한 '통제'에 집착할 때, 우리는 필연적으로 '현재'를 '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게 된다.<sup>14</sup> 8장은 이처럼 '현재'를 살지 못하는 병'을 진단한다.

버크먼은 우리가 '도착 지연' 증후군에 걸려있다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여기'에 존재하지 않고, 항상 "내가 *언젠가*... (~하면)"이라는 가상의 미래에 살고 있다.<sup>13</sup>

- "내가 *언젠가* 이 프로젝트를 끝내면, 그때 행복할 거야."
- "내가 *언젠가* 승진을 하면, 그때 여유를 찾을 거야."
- "내가 *언젠가* 은퇴를 하면, 그때 진짜 삶을 살 거야."

버크먼은 이 끝없는 '준비' 상태가 현대인의 기본값이 되었다고 지적한다.<sup>14</sup> 유치원은 초등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고, 초등학교는 중학교를 위한 준비 과정이며, 대학은 취업을 위한 준비 과정이다. 결국 삶 전체가 '진짜 삶'을 위한 끝없는 준비 과정이 되어버리고, '진짜 삶'은 영원히 시작되지 않는다.<sup>30</sup>

현재'를 '도구화(instrumentalization)'하는 이 태도는 일상 곳곳에 스며들어 있다. 버크먼은 콘서트장에서 현재의 생생한 경험을 눈으로 즐기지 않고, '미래의 불확실한 감상'을 위해 스마트폰 카메라로 녹화하는 행위<sup>14</sup>를 완벽한 예로 든다. 이는 '현재의 경험'을 '미래를 위한 자료'로 희생시키는 것이다.

이 장은 독자에게 "당신의 삶이 '진짜' 시작되기를 아직도 기다리고 있습니까?"라고 묻는다. 3장에서 '유한성'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지금(here)'이 우리가 가진 유일한 시간이며<sup>14</sup>, '준비' 단계 따위는 없음을 깨닫는 것이다. 지금이 바로 '본편'이다.

"Living more fully in the present may be simply a matter of finally realizing that you never had any other option but to be here now."<sup>16</sup>

[해설] 현재에 더 충실히 산다는 것은, 애초에 우리에게 '지금 여기' 외에는 다른 어떤 선택지도 없었음을 마침내 깨닫는 것일 수 있다.

## Chapter 9: Rediscovering Rest (휴식의 재발견)

'현재'조차 '미래'를 위한 도구로 전락한(8장) 세상에서, '휴식(Rest)' 또는 '여가(Leisure)' 역시 그 본래의 의미를 잃고 오염되었다. 이 장은 '진정한 휴식'의 의미를 되찾을 것을 촉구한다.

현대인에게 '휴식'은 '휴식 그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더 나은 생산성을 위한 재충전'이라는 수단이 되었다.<sup>3</sup> 우리가 주말에 쉬고, 휴가를 가는 이유는 '다음 주에 더 열심히 일하기 위해서'이다.

이는 휴식조차 '미래의 생산성'이라는 목적에 복무하게 만드는, 또 다른 형태의 '현재의 도구화'이다. 사회학자들이 '게으름에 대한 혐오(idleness aversion)'<sup>3</sup>라고 부르는 현상 때문에, 우리는 아무런 목적도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고 죄책감을 느낀다.

버크먼은 이러한 '도구화된 휴식'과 구별되는 '진정한 휴식'을 재발견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는 고대 그리스인들이 '일(Work)'의 목적 그 자체로 여겼던 '여가(Schole)' 개념을 상기시킨다.<sup>3</sup> 그들에게 여가(철학적 대화, 예술 감상, 사색)는 '일을 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여가를 즐기기 위해' 일을 하는 것이었다.

진정한 휴식이란, "미래에 아무런 이득이나 보상이 없다 해도(even if there's no future benefits to gain)"<sup>3</sup>, 그저 그 행위 자체가 좋아서, 그 행위 자체로 완전한 목적이 되는 활동을 하는 것이다.

진정한 휴식은 '유한성 수용'의 가장 강력한 실천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미래의 이익'을 위해 현재를 저당 잡히지 않고, 나의 유한한 4000주 중 일부를 그저 '존재의 즐거움' 자체를 위해 사용하겠다는 급진적인 선언이기 때문이다. (이는 부록의 10번째 도구인 '아무것도 하지 않기 연습'<sup>31</sup>과 직결된다.)

## Chapter 10: The Impatience Spiral (조급함의 악순환)

기술의 발달이 우리에게 여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조급함(patience)'을 증폭시키는 현상을 다룬다. '효율성의 덫'(2장)이 '바쁨'을 초래했다면, '조급함의 악순환'은 우리의 '심리적 속도'를 망가뜨린다.

이 악순환의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sup>5</sup>:

1. 기술(예: 전자레인지, 초고속 인터넷)이 발달하여 특정 작업의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인다.
2. 우리의 '기대치'가 이 새로운 최고 속도에 맞춰 상향 조정된다.
3. 우리는 이제 현실의 모든 것이 이 '최고 속도'로 움직여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기대한다.
4. 그러나 현실은(예: 오븐 요리, 우편 배송, 혹은 인간관계나 아이의 성장) 여전히 본질적으로 '느린' 속도를 요구한다.
5. 이 '가속화된 기대'와 '느린 현실' 사이의 불일치가 우리를 '조급하고' '분노하게' 만든다.

버크먼은 자신의 경험을 통해 이 역설을 날카롭게 지적한다.

"It's somehow vastly more aggravating to wait two minutes for the microwave than two hours for the oven—or ten seconds for a slow-loading web page versus three days to receive the same information by mail."

5

[해설] 오븐을 2시간 기다리는 것보다 전자레인지를 2분 기다리는 것이, 혹은 3일 걸리던 우편보다 10초 늦게 로딩되는 웹 페이지가 우리를 '훨씬 더 짜증나게' 만든다. 기술은 우리에게 시간을 준 것이 아니라, 시간을 대하는 우리의 '감각'을 망가뜨리고 조급하게 만들었다.

'조급함의 악순환'은 우리가 '현실을 통제하려는 욕망'(2부의 주제)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준다. 우리는 현실이 '나의 속도'에 맞춰주기를 바란다. 이 조급함은 삶의 질을 현격히 떨어뜨린다. 우리는 느린 과정(예: 아이가 스스로 신발 끈 매는 것, 노부모와의 느린 산책)을 견디지 못하고, 현재의 풍요로움을 스스로 파괴한다.

## Chapter 11: Staying on the Bus (버스에 계속 타고 있기)

10장에서 진단한 '조급함'의 해독제는 '인내심(Patience)'이다. 이 장은 인내심을 '수동적인 기다림'이나 '권력 없음'의 상징이 아니라<sup>14</sup>, '적극적인 기술'이자 '초능력(superpower)'으로 재정의한다.

모두가 더 빨리 가려고 안달하는 현대 사회에서, '기꺼이 느린 과정을 견디는 힘'은 역설적으로 가장 희귀하고 강력한 능력이 된다.<sup>14</sup>

이 장에서 버크먼은 '급진적 점진주의(Radical Incrementalism)'<sup>32</sup>라는 실천법을 제시한다. 유한한 삶에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성취(예: 위대한 소설 쓰기, 악기 마스터하기)는 '단기간의 폭발적인 노력'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과정을 견디며(6장)', '매일 조금씩 꾸준히' 쌓아가는 것에서만 나온다.<sup>32</sup>

스티븐 킹(Stephen King)이 매일 2,000단어를 쓰는 것처럼<sup>32</sup>, '버스에 계속 타고 있다'는 것은, 결과가 보이지 않고 지루하더라도 그 과정을 묵묵히 견디며 매일의 작은 발걸음(incremental chunk)을 쌓아가는 태도이다.<sup>32</sup>

인내심은 '유한성 수용'의 또 다른 모습이다. 4000주라는 시간은, 매일 조금씩 쌓아 올리기에는 충분히 긴 시간이지만, 모든 것을 '단번에' 혹은 '빨리' 해치우기에는 터무니없이 짧은 시간이다.

'급진적 점진주의'는 '효율성의 덫'(2장)에 빠지지 않고, '현재'(8장)에 충실하며, '지루함'(6장)을 견디는, 1부와 2부의 통찰을 통합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다.

## Chapter 12: The Loneliness of the Digital Nomad (디지털 노마드의 외로움)

이 장은 시간 통제의 '궁극적 이상향'으로 여겨지는 '디지털 노마드'의 삶을 분석한다. 디지털 노마드는 장소와 시간에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시간을 100% 완벽하게 통제(sovereignty)하는 삶을 상징한다.<sup>23</sup> 하지만 버크먼은 이 '완벽한 통제'가 왜 역설적으로 '극심한 외로움'과 '무의미'로 귀결되는지 탐구한다.

그 이유는 '통제'와 '연결'의 상충 관계에 있다.

우리는 자신의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기를 꿈꾼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 의미를 주는 대부분의 소중한 가치들(사랑, 우정, 가족, 공동체)은 '타인과의 시간 동기화(synchronization)'를 필수적으로 요구한다.<sup>14</sup>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내 마음대로' 시간을 쓰려는 통제권을 일부 포기해야 한다. (예: 정해진 저녁 식사 시간, 공동의 휴일, 친구의 약속 시간에 나를 맞추는 것).

"The more individual sovereignty you achieve over your time, the lonelier you get." <sup>23</sup>

[해설] 당신이 시간에 대해 더 많은 개인적 주권을 획득할수록, 당신은 더 외로워진다.

완벽한 자유는 아무와도 일정을 맞출 필요가 없음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이는 아무도 당신과 일정을 맞추려 하지 않음을 의미할 수 있다. 아무와도 연결되지 않은 자유는 "의미가 없다(devoid of meaning)".<sup>14</sup>

이 장은 '시간 관리'가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라는 통념을 깨고, 그것이 본질적으로 '관계적(relational)' 문제임을 드러낸다. 진정한 행복은 '시간을 내 맘대로 쓰는 것'에 있지 않고, '나의 유한한 시간을 기꺼이 함께 나누고 동기화할 타인'이 있음에 있다.

### Chapter 13: Cosmic Insignificance Therapy (우주적 하찮음 치료)

2부의 철학적 클라이맥스에 해당하는 장이다. 3장이 '개인적 유한성(나는 죽는다)'을 다루었다면, 13장은 '우주적 유한성(나는 우주적 관점에서 중요하지 않다)'을 다룬다.

버크먼은 우리가 '4000주'를 어떻게 쓰든, 광활한 우주의 역사에서 보면 나의 존재는 한 점 먼지에 불과하며 '하찮은(cosmically insignificant)' 존재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때, 역설적인 '해방'과 '치료'가 일어난다고 말한다.

현대인은 "우주에 흔적을 남겨야 한다(put a dent in the universe)" <sup>33</sup>거나 "세상을 바꿔야 한다"는 '위대함에 대한 강박'에 시달린다. 이 강박은 우리의 유한한 4000주를 "엄청나고 비범한(remarkable)" 성과를 내야만 한다는 추상적이고 과도한 기준으로 평가하게 만든다.<sup>34</sup>

'우주적 하찮음 치료'는 이 거대하고 불가능한 강박을 내려놓게 한다. "어차피 우주에 비하면 나는 티끌 같은 존재야. 그러니 반드시 위대해져야 할 필요도, 세상을 바꿀 필요도 없어."<sup>36</sup>

이것은 허무주의나 냉소주의가 아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다. '우주적 스케일'의 야망을 버릴 때, 비로소 우리는 '인간적 스케일'의 구체적인 삶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Truly doing justice to the astonishing gift of a few thousand weeks isn't a matter of resolving to "do something remarkable" with them. In fact, it entails precisely the opposite: refusing to hold them to an abstract and overdemanding standard of remarkableness... and taking them instead on their own terms, dropping back down from godlike fantasies of cosmic significance into the experience of life as it concretely, finitely—and often enough, marvelously—really is." <sup>34</sup>

[해설] 우리의 4000주에 '진정으로 보답하는' 길은 '비범한 일'을 하기로 결심하는 것이 아니다. 정반대다. '비범함'이라는 신(神)과 같은 환상적인 기준을 버리고 <sup>34</sup>, 우리의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우주적 야망을 버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지금 여기'(8장)의 구체적이고 유한한 삶이 그 자체로 충분히 경이롭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아이에게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일" <sup>38</sup>이, 우주적 관점에서는 어떤 위대한 업적과도 다르지 않게 중요할 수 있음을 아는 것이다.

### Chapter 14: The Human Disease (인간이라는 질병)

이 책의 결론에 해당하는 장이다. 우리가 유한하고(3장), 시간을 통제할 수 없으며(7장), 우주적으로 하찮다는(13장) 사실에서 오는 근본적인 불안과 고통. 버크먼은 이것이 바로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인간이라는 질병(The Human Disease)' <sup>14</sup>이라고 명명한다.

이 '질병'의 본질은 '시간이 부족하다'는 느낌 자체가 아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가 '시간을 완벽하게 지배하여(master) 영원한 안전과 안정을 느끼려는 욕망' <sup>14</sup>이다.

그렇다면 이 질병의 치료법은 무엇인가?

버크먼은 젠(Zen) 불교의 스승 샬롯 조코 벡(Charlotte Joko Beck)의 말을 인용하여, 이 질병에 대한 역설적인 '치료법'을 제시한다.<sup>40</sup>

"The human disease is often painful, but as the Zen teacher Charlotte Joko Beck puts it, it's only unbearable for as long as you're under the impression that there might be a cure. 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affliction, and freedom ensues: you can get on with living at last." <sup>13</sup>



[해설] '인간이라는 질병'은 고통스럽다. 하지만 이 고통이 '견딜 수 없을(unbearable)' 정도로 끔찍한 진짜 이유는, 우리가 어딘가에 이 고통을 없애줄 '완벽한 치료법(cure)'이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이다.

'완벽한 생산성 기법', '모든 것을 해내는 효율성', '완벽한 계획' 등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매는 '치료법'들이다. 그러나 이것들은 모두 환상이다.

진정한 자유는, "치료법이 없다"는 사실, 즉 이 고통과 불안이 '인간이라는 조건' 자체임을 '그대로 받아들일 때(Accept the inevitability of the affliction)' 비로소 시작된다.

더 이상 시간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를 하지 않아도 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냥' 이 삶을 살아갈(get on with living at last)' 자유를 얻는다.<sup>40</sup>

## 결론부: 희망을 넘어서 (Beyond Hope) 및 실천적 도구

책의 마지막은 14장의 통찰을 이어받아, 우리가 마지막으로 버려야 할 환상이 '희망(Hope)'이라고 말하며, 동시에 이 모든 철학적 성찰을 일상에서 실천할 구체적인 '도구'들을 제공하며 마무리된다.

### Afterword: Beyond Hope (희망을 넘어서)

여기서 버크먼이 버리라고 말하는 '희망'은, 긍정적인 삶의 태도(Hope)가 아니다. 그것은 "언젠가 모든 것이 완벽하게 통제 될 것이라는 희망"<sup>22</sup>, "언젠가 내 할 일 목록이 0이 될 것이라는 희망", "언젠가 나는 완벽한 효율성을 갖추게 될 것이라는 '헛된 희망'"이다.<sup>42</sup>

이런 '헛된 희망'은 우리를 '현재'에 행동하지 못하게 만들고, '미래'의 그 완벽한 날만을 기다리게 한다 (8장의 '도착 지연 증후군'과 연결됨).

이 '헛된 희망'을 버릴 때, 우리는 '세상이 불확실하고 비극으로 가득 차 있다'는 현실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게 된다.<sup>42</sup> 그리고 바로 그 수용 위에서,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중요한 몇 가지 일(a few things that count)'에 비로소 집중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얻는다.<sup>42</sup>

### Appendix: Ten Tools for Embracing Your Finitude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10가지 도구)

이 책은 추상적인 철학적 성찰에 그치지 않고, 독자가 이 '유한성'을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10가지 도구를 제공한다.<sup>31</sup> 이 도구들은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한 생산성 해(hacks)'가 아니라, '유한성을 받아들이는 연습(practices)'이다.

1. 고정된 양 접근법 채택 (Adopt a "fixed volume" approach): '해야 할 일'은 무한하지만 '할 수 있는 일'은 유한함을 인정하는 방식이다. 예를 들어, '닫힌(closed)' 할 일 목록을 10개로 고정하고, 하나를 끝내야만 '열린(open)' 무한 목록에서 하나를 가져올 수 있게 한다.<sup>43</sup> (1장, 3장 실천)
2. 직렬화, 직렬화, 직렬화 (Serialize, serialize, serialize): 한 번에 여러 개의 큰 프로젝트를 하려는 유혹을 버리고, '한 번에 하나씩' 끝내는 데 집중한다.<sup>43</sup> (4장 실천)
3. 무언에 실패할지 미리 결정하기 (Decide in advance what to fail at): '전략적 비달성(strategic underachievement)'<sup>5</sup>이다. 모든 영역(일, 가정, 건강, 취미)에서 완벽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의식적으로 '덜 잘하기로' 혹은 '실패하기로' 결정하는 영역을 정한다.<sup>44</sup> (4장 실천)
4. 완료한 일에 집중하기 (Focus on what you've already completed): '할 일 목록(To-do list)'이 주는 미래의 압박감에서 벗어나, '완료한 일 목록(Done list)'<sup>5</sup>을 작성하며 이미 성취한 것을 인정한다. (8장 실천)
5. 관심의 영역 통합하기 (Consolidate your caring):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없음을 인정한다. 자신이 진정으로 기여할 수 있는 몇 가지 영역을 정해 '선택과 집중'을 한다.<sup>31</sup> (13장 실천)
6. 지루하고 단일 목적의 기술 포용하기 (Embrace boring and single-purpose technology): 만능 기기(스마트폰) 대신, 하나의 기능만 수행하는 '지루한 기기'(예: 전자책 리더기)를 사용한다.<sup>31</sup> (5장 실천)
7.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 새로움 찾기 (Seek out novelty in the mundane): '조급함'(10장)을 버리고, 일상의 반복적인 일(예: 산책, 설거지)에서 감각을 열고 새로운 면을 발견하려 노력한다. (8장, 10장 실천)
8. 관계에서 '연구자' 되기 (Be a "researcher" in relationships): 타인을 '나의 필요'를 위한 도구로 보지 않고, 그저 '호기심(curiosity)'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탐구하는 태도를 갖는다.<sup>31</sup> (12장 실천)

9. 즉각적인 관대함 기르기 (Cultivate instantaneous generosity): 관대한 행동(예: 기부, 감사 편지)을 하고 싶은 충동이 들 때, '나중에'라고 미루지 말고 '즉시' 행동한다. (8장 실천)
10. 아무것도 하지 않기 연습 (Practice doing nothing): 이 책의 핵심이다. '생산성'이나 '휴식'이라는 목적조차 없이, 말 그대로 5분, 10분간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존재 자체의 불편함과 지루함을 견디는 연습을 한다.<sup>31</sup> (6장, 9장 실천)

## 종합 고찰: 《Four Thousand Weeks》의 지적 공헌과 비판적 수용

《Four Thousand Weeks》는 '자기계발'의 외피를 쓰고 있지만, 그 본질은 하이데거<sup>7</sup>, 세네카<sup>7</sup>, 그리고 젠(Zen) 불교<sup>40</sup>의 통찰을 현대인의 '이메일함'과 '스마트폰'이라는 구체적인 현실로 가져온 탁월한 '실존 철학서'이다. 이 책은 현대인이 겪는 '시간 불안'의 근본 원인을 폭로하고, '더 많이'가 아닌 '다르게' 살도록 요구하는 삶의 태도를 제시한다.

물론 이 책에 대한 비판적 시각도 존재한다. 일각에서는 이 책의 메시지가 "게으르고 야망 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명"<sup>33</sup>이라고 비판한다. '우주적 하찮음'(13장)이나 '실패의 수용'(부록 3번) 같은 개념이 '성취'와 '노력'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는 것이다.<sup>33</sup>

그러나 이러한 비판은 버크먼이 말하는 '야망'의 재정의의 간과한 것이다.

첫째, 버크먼이 비판하는 것은 '야망(Ambition)' 그 자체가 아니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거나 "우주를 바꿔야 한다"는 신(God)과 같은 맹목적이고 '추상적인 야망'이다.<sup>34</sup>

둘째, 그는 오히려 '우주적 야망'이라는 환상을 버릴 때, 비로소 '지금 여기의 구체적인 일'(예: 아이 돌보기<sup>38</sup>, 자신의 창작 활동)에 헌신할 수 있는 '진짜 야망', 즉 '인간적 스케일의 야망'이 생긴다고 말한다.

셋째, 이 책은 '게으름'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헛된 분주함(busyness)'을 멈추고 그 에너지를 '진정으로 중요한 소수'에 집중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게으른 사람'에게는 오히려 가장 어려운 요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기'(부록 10번)가 이메일 50개를 처리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용기와 수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Four Thousand Weeks》는 4000주라는 우리의 유한한 시간 속에서, '모든 것을 통제하려는 헛된 시도'가 바로 고통의 근원임을 선언한다. 저자는 우리에게 '시간을 더 잘 관리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다. 대신, 우리가 '시간의 파도' 위에서 통제 불가능성을 받아들이고, 기쁨과 의미를 찾으며 '서핑하는 법'을 배우라고 초대한다. 본 보고서가 독자의 남은 시간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깊은 울림을 주었기를 바란다.